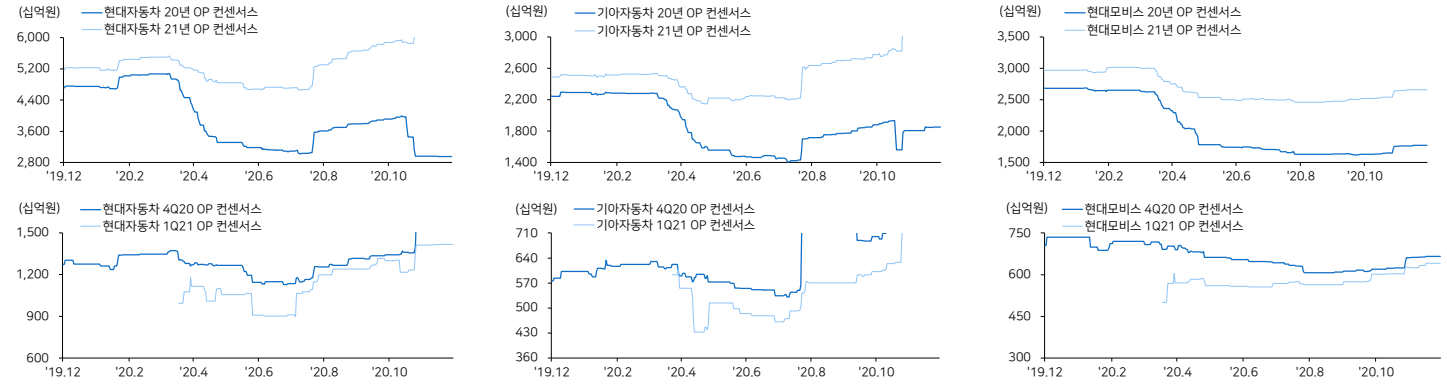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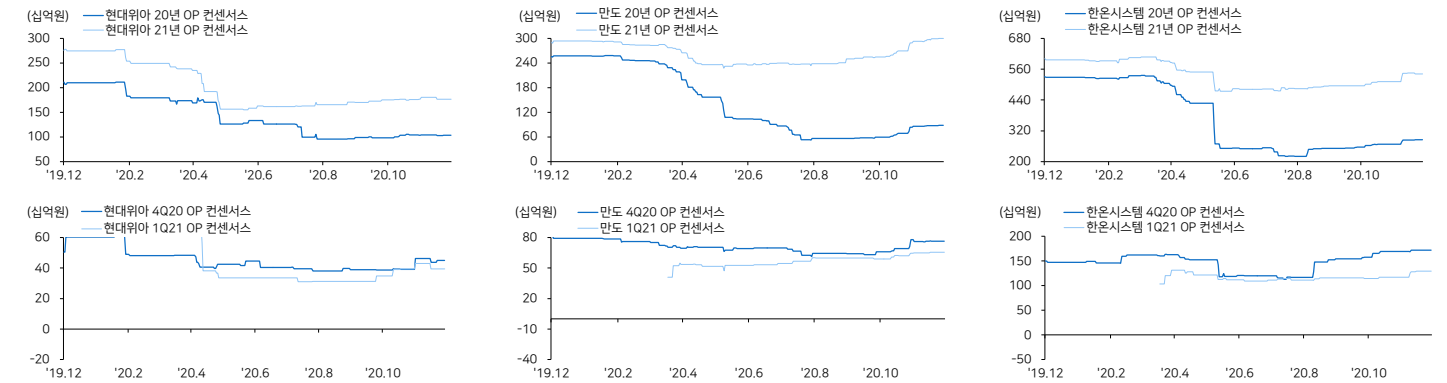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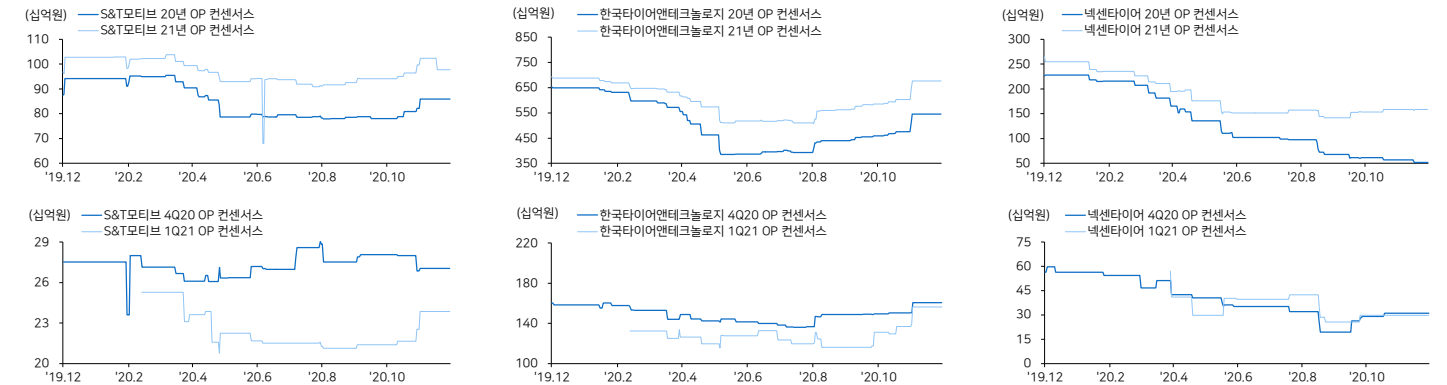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유럽형 소형 SUV 개발 중인 현대차..새로운 '막내차' 등장 예고 (데일리카)

현대차가 유럽 전락형 소형 SUV 바이온(Bayon)을 2021년 출시한다. 코나, 투싼, 싼타페로 이어지는 SUV 라인업 가운데 새로운 막내로 투입될 바이온은 소형 해치백 i20의 플랫폼을 활용하며, 기아차 스토브와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https://bit.ly/39qCYhf>

현대차, 무료 커넥티드카로 미래차 경쟁력 강화 (전자신문)

현대차가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의 무료 혜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림. 추가 5년에 대해선 일부 기능이 제한되지만 10년이라는 무료 혜택 기간은 이례적 조치. <https://bit.ly/37phNcv>

기아차 노조, 이번 주에도 부분 파업 (KBS뉴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감. 기아차 노조는 쉐어링위원회를 열고 내일(1일)과 모레(2일), 그리고 다음 달(4일)에 주간과 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bit.ly/37phIPF>

코로나19 시대 특화된 자동차 용품 내놓은 현대모비스 (경향비즈)

현대모비스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차량용 마스크' 할 수 있는 차량용 공기정정기, 청정한 공기여 좋은 향기를 더하는 차량용 방향제, 장기간 이동시 지루함을 달래는 뒷좌석용 모니터 등. <https://bit.ly/3mBAXSQ>

2030년 유럽 내 수소트럭 10만대 전망--현대차 기대감 ↑ (더그루)

오는 2030년 유럽 내 대형 수소트럭이 10만대에 이르며 수소차는 물론 연료인 수소의 가격이 큰 폭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현실화 될 유럽 수소트럭 보급에 적극적인 현대차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https://bit.ly/3qf9rm>

현대차, '인도 수출' 2세대 크레타 남아공 출격 (더그루)

현대차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2세대 '크레타'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출시. 현대차는 지난 27일(현지시간) 2세대 크레타의 남아공 판매를 시작. 지난 2017년 1세대 모델의 출시 이후 3년만에 남아공에서의 세대 변경. <https://bit.ly/3lqTrUV>

현대차 중국시장서 끝없는 추락... 올 50만대 판매도 어려울듯 (조선일보)

현대차의 올 1~10월 중국 판매량이 50만대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전성기의 반 트럭도 안 되는 수준. 30일 현대차에 따르면, 베이징현대차는 지난 1~10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34만1600대를 판매했다. <https://bit.ly/2JedTC>

중국산 테슬라 '유럽 수출 첫 물량 벨기에 도착 (ZD넷코리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차량이 처음으로 유럽 수출길에 올라 현지에 도착.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모델3' 3천600대가 환담 여 간의 해상 운송 과정을 거쳐 26일 오후 벨기에에 제브루헤(Zeebrugge) 항구에 도착. <https://bit.ly/36ZJA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